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진실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이 또한 이것을 증명합니다. 내 마음 속에는 큰 슬픔과 끊임없는 번민이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겨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나의 동족은 하느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하느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참된 예배가 있고 하느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 훌륭한 선조들의 후손들이며 그리스도도 그들과 같은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느님을 영원토록 찬미합니다(로마 9:1-5)

십여년 전에 기독교사상 주관으로 일하고 있을 때, <가시다람쥐의 생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논설을 쓴 일이 있습니다.

「한 겨울에 두 마리의 가시다람쥐가 한 울에서 지내고 있었다. 밖의 날씨가 춥기 때문에 두 마리의 가시다람쥐는 서로 몸을 바싹대고 체온으로 서로 따뜻하게 지내려고 했다. 그러나 몸을 서로 비벼대면, 자연히 상대방의 가시털에 찔려서 움찔하고 서로 떨어지고 만다. 그러나 좀 있으면 몸이 또 추워지므로 하는 수 없이 또 서로의 몸을 비벼댄다. 그러면

또 먼젓 번과 같이 상대방의 가시에 찢려서 움찔하고 몸을 떼어 버린다. 이 일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가시다람쥐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상처 투성이가 된다.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결국 한 겨울이 다 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결국 가정이나 직장 같은 공동체의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고 하면서도 체온을 나누어서 따뜻하게 지낸다는 것, 이렇게 따뜻히 지내는 가운데 서로가 상대방을 찢르고, 또 찢려 가면서 떨어졌다가는 또 붙고, 붙었다가는 또 떨어지는 인간의 운명적인 질서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관계를 반복하는 가운데 그 인생은 종말이 가까워지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이 이 세상을 떠나고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는 어디든지 이렇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상호간에 매일 반복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최근 한국 교회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몇 가지를 보고 이 우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1백 주년을 앞에 두고 각 교단마다 교회 확장을 위한 대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선교 백주년까지는 앞으로 5년이 남았는데 그동안 5천교회를 새로 세우자는 것이고 기독교장로회에서도 2천교회로 확장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의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간의 분열은 마치 가시다람쥐의 생리와 같습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30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러한 악순환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더 큰 경륜을 만들며 선교를 해나가야 하는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는 교회 확장을 위한 신앙부흥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우리 한빛교회도 열심히 전도운동에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부터 나는 이 강당에 서서 고난과 부활 주일을 시발점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더듬어 그의 교훈을 중심으로 선

교를 해왔습니다. 이 반년간의 설교 주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빠지더라도 참된 신앙, 내실이 있는 신앙의 결단을 하자는데 그 중심이 있습니다.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따라야 하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민족의 구원, 내 골육의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들 사는 일에 쫓기어서 한 주간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한 시간 보는 것도 힘겨운데 어떻게 내가 남의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분수에 넘는 일이 아닌가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너무 분주합니다. 현실 생활에서 얼마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앞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에만 집착하고 긴 안목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인 인권문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모두 시간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하느님의 백성을 더욱 많이 형성하는 일에 등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에 하루나 한나절이라도 내 이웃을 위해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시작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선교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는데, 이에 못지않게 더 절실한 문제는 역시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무어라고 얘기해서 전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옛날같으면, 구원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일을 위해서 에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전도해야 할 텐데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가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니 사업에 성공한다는니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 수 있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신자가 되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 세상의 우수사려를 말끔히 씻어버릴 수도 있다고 해도 별로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면 원죄니 양심이니 해서 한결 더 마음이 무겁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자로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교나 전도에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일률적인 수학 공식처럼 어떤 경우나 어떤 사람에게든 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알맞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형편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말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구약 성서를 통해서 꾸준히 흘러내려온 복음의 전통은 불변의 진리로 고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 깊은 자각이나 해명이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구약에서나 신학성서의 죄는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일, 즉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이 땅 위에서 인간을 지배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 학교 시대부터 늘 교육받아 온 교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진리를 배반합니다. 이 교훈을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은 온 인류가 그의 권세 밑에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생활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그의 지배를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하는 것을 저버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가? 지난 주에 본 회퍼의 값싼 은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교회의 최대의 적은 값싼 은총을 찾아다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공의를 저버리고 값싼 은총을 찾는 일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 가정 안에서 자식의 부모들에 대한 태도로서, 가정의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하든지 도의적으로 어떠하든지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사회의 빈축을 받는다고든지 반사회적인 일을 하든지 간에 가정에 불행없이 풍족한 생활만 하게 되면 된다는 생각, 학비를 잘 대주고 용돈만 잘 주면 좋다는 생각, 남편이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사업에 성공해서 돈만 잘 벌어들이면 된다는 부인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극단으로 나가면 돈을 얻기 위해서는 남편을 살인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일본의 타나카가 그렇게 일본의 정치 윤리를 뒤흔드는 부정을 저질렀어도 자신의 출신구에다 많은 복지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출신구에서는 그를 무조건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하든 자기 고장에 많은 건설 사업을 하는 한 지지한다는 사고방식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자기 나라의 GNP나 복지만을 위해서 큰 업적을 세우기만 하면 국제적으로 무슨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든 괜찮다는 국민의 사고 방식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리하여 국제 정치에서도 정치 도의가 없어지고 한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올바른 가정 윤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정치가들 사이에도 올바른 윤리가 확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만 찾으면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전 세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짙어 있는 실

정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죄 또는 개인의 죄를 말할 때는 눈 앞에 당장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전체 인류나 국가의 도의적인 연대의식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만을 생각하다 보니 결국 전체적인 도의를 계속해서 타락시키게 되고, 힘 없고 약한 자들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방치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선교와 전도를 할 메시지는 역시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화평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도와주고 존경해주는 사랑의 정신으로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동족을 사랑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서한에서는 대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 많은 교훈을 주었지만 로마서에서는 주로 그의 심오한 신학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한이야말로 후세의 모든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전개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끝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는가 하면서 환난이나 역경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세상 어느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죽어도 생명도, 천사나 권세자들도, 현재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어떤 힘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9장에서 말합니다. 그에게 양심대

로 말하자면 크나큰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즉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8장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그후에는 나와 동족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바울의 사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자가당착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고민은 사실이 자가당착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는 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가당착을 단순한 논리의 비약이나 관념의 유희로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9장에서 12장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고 이것이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저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4절에서 그는 「나의 동족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권이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장 7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고는 또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이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그 올바른 관계를 이룩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자기의 동족에 대한 깊은 유대이면서도, 한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자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육의 인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의 부모형제간의 사랑의 정신으로 가정이 이루어진다.

*한 민족, 한 언어를 가졌다해서 민족국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게 사랑과 정의로 결속된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참 민족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생에게서 등록금을 받아 모아 놓으면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안에 어떤 이념과 진리 추구의 정신이 있어야 학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직장이라고 해서 단순히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댕가를 주고받는 노동 시장일 때는 그것이 참된 직장일 수 없다.

한 공동체로서의 상호부조, 높은 차원의 이념을 실현시킬 때 느끼는 보람 없이는 참 직장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의 가시다람쥐의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도 추위를 면키 위해서는 체온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괴로운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기존의 체제나 상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신앙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고 하신 신명기의 말씀처럼,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고백함으로써 구

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설교의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로써 우리가 전도하고 또 나아가서는 가시다람쥐의 악순환을 꺾하고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구원의 길로 삼을 일입니다.

(1976. 9. 23 한빛교회)